

尹대통령 작심비판에... 은행 '돈잔치' 손본다

“고금리에 국민 고통 큰데 돈잔치 웬말” 직격탄 금감원, 대책 마련 착수... 성과급제도부터 점검 정치권도 금리인하권 이용 쉽게 제도 개선나서

고금리 시대에 서민의 이자 부담은 늘고 있지만 은행권은 역대급 실적을 이루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 돈 잔치라고 직격하며 금융당국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금융당국은 당장 은행 성과급 제도부터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 경영진의 성과급 적정성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날 윤 대통령이 “은행 고금리로 국민 고통이 크다”며 “은행의 돈 잔치로 국민이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에 따른 조치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에도 “은행은 국방보다도 중요한 공공재적 시스템”이라며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6일 “은행들이 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사회적 역할을 소홀히 하고 수익성만 추구한다면 국민과 시장에서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정부에서 연일 은행을 견제하는 이유는 고금리 흐름에 은행들만 잔치를 벌이는 분위기 때문이다.

서민의 이자 부담은 늘어 가는 와중에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는 지난해 이자로만 39조6735억 원에 이르는 이익을 얻었다. 당기순이익도 15조8506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이다.

국민·신한·우리은행 등 주요 은행사는 회망퇴직 비용으로 직원 1명당 3억4400만 원에서 4억4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도 드러



이도훈 대통령실 대변인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에 대해 이른바 돈잔치라는 국민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14일 황윤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요 5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성과급 총액은 1조3823억 원으로 드러났다. 2021년에 비해 3629억 원 늘어난 금액이다.

은행별로 △NH농협은행 6706억 원 △KB국민은행 2044억 원 △신한은행 1877억 원 △하나은행 1638억 원 △우리은행 1556억 원 순이었다.

황 의원은 “가파른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국민 대다수가 대출이자·가계부채로 힘겨워하는데 은행들이 성과급으로 ‘돈 잔치’를 벌인 것은 은행의 공공재적 성격을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미(美) 금리 인상이라는 세계 경제 흐름으로 연 이자수익을 경영진 ‘성과’로 볼 수 있느냐는 의문도 뒤따르고 있다. 경영으로 인한 성과와 추세로 인한 성과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6월 마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근거로 성과급

체계 개선에 나선다. 임원은 보수성과급·산정기준 등을 연차 보고서에 공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치권에서도 발걸음을 맞추고 있다. 7일 김기현 의원은 현행 ‘금리인하요구권’을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대폭 손질해 제도화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신용 상태나 상환능력이 개선되면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김 후보 측은 개인이나 기업이 별도의 금리인하 요구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금리인하 요건이 충족되면 금융권에서 자동적으로 대출금리를 낮춰 주도록 강제화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은행들은 성과급 지급 등 돈 잔치를 하고 있지만 서민들은 늘어난 이자 부담과 이자율 증가로 고통이 가중돼 왔다”며 해당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건혁 기자 ghee@skyedaily.com

뉴스드립

조응천 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 다들 고민이 많아”

조응천 더불어민주당은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 “확신하기 힘들다”며 선을 그으면서도 총선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조 의원은 14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녁’에 출연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두고 당내 분위기를 묻자 “아무래도 뒤숭숭하다”고 전했다. 이어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 생각이 복잡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면서도 “검찰의 영장한 수사를 보면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zuta**** 증거가 없으면 영장이 안 나왔지. 두고 보자고.

depp**** 이 사람은 매년 이런 식으로 말하고 결국 당내 대세 의견 따르는 것 같던데.

hyou**** 여기서 내부 분위기에. 이참에 아낙언이 나오려나.

“금 들고 튀었어” 통화내용들은 택시기사 신고로 검거

승객의 통화 내용을 듣고 수상함을 느낀 택시기사의 신고로 금은방 절도범을 검거했다. 범인은 조수석에서 지인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범죄사실을 자랑하듯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택시기사가 “승객이 요금을 주지 않아 기다리는데 통화 내용이 수상하다”며 신고했다.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본 결과 범인은 택시 요금을 빌리기 위해 지인과 통화하면서 “금을 들고 튀었다”며 “3일째 안 잡혔는데”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인은 지난달 27일 충북 증평군의 한 금은방에서 1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나 경찰이 추적 중이었다.

sjus**** 나쁜 놈이 어리석은 경우.

ssyo**** 절도를 자랑하고 있네. 기사님을 뭐 무시한 거야 뭐야.

penh**** 혼자 영화 한 편을 찍네.

대통령실 “金여사 계좌 활용됐다고 주가조작 가담 아니다”

“민주당에서 판결문 멋대로 해석... 가짜뉴스로 정치공세” “金여사에 연락·공모했다는 사람 없어”... 차명 의혹 반박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 대통령실이 14일 “계좌가 활용됐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야권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김 여사 연루 의혹과 특검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이 판결문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치공세용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어 사실 관계를 바로잡습니다라는 제목의 언론 공지를 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수십 명을 강도 높게 조사했으나, 김건희 여사와 주가조작 관련 연락을 주고받거나 공모했다고 진술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며 “이 때문에 범죄사실 본문에 김건희 여사

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판결문 중 범죄일람표에 김건희 여사가 48회 등장한 것을 놓고 마치 범죄에 관여한 것처럼 거짓 해석을 하고 있으나, 48회 모두(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인) ‘권오수 매수 유도군’으로 분류돼 있고 차명계좌가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권오수 매수 유도군’이란 표현은 권 대표와 피고인들이 주변에 매수를 권유해 거래했다는 뜻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대통령실은 “매수를 유도하거나 계좌가 활용됐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또 “일부 언론에서 2차 주가조작 기간에 48회나 거래했다고 부풀리고 있으나, 매



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진상조사TF 1차 공개회의’에서 박범계 고문이 발언하고 있다.

매 내역을 보면 2010년 10월28일부터 12월 13일까지 단 5일간 매도하고 3일간 매수한 것이 전부”라며 “아무리 부풀려도 3일 매수를 주가조작 관여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판결문상 주가조작 기간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로 2년이 넘는

기간 사건을 역지로 공소시효를 늘려 기소했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라며 “2년 넘게 수사하고도 김 여사의 구체적인 가담 사실을 특정할 내용이 전혀 없어 공소사실을 작성할 수조차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준구 기자 jkim@skyedaily.com



세무 패밀리 오피스 (TFO) 모집

법인컨설팅의 명가 '피플라이프'에서 기업컨설팅을 같이 할 파트너 세무사 단체 및 개인 세무사를 초빙합니다

TFO (Tax Family Office)	당사 기준조직 및 시스템과 세무사의 결합으로 Win-Win 관계를 형성하고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최고의 세무패밀리오피스 네트워크 구축
-----------------------------------	--

- 대상 : 단체 (세무사회 및 세무법인), 개인세무사
- 담당업무 : 기업경영 리스크 컨설팅 / 절세설계
- 특전사항
 1. 위촉축하금 : 100만원 (설계사 등록 시 1회 지급)
 2. 연구개발비 선지원 : 1~6개월 : 매월 50만원 (회계지급)
7개월 이후 : 매월 10~50만원 (매 분기 업적평가 후 차등지급)
 3. 성과수수료 및 유지수수료 : 당사 FA들과 동일

피플라이프
검색
☎
02-6909-2036

피플라이프는 국내 최초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시스템 개발 17년 업력의 법인컨설팅 노하우 및 분업화, 컨설팅, 네트워킹, 교육시스템 등 4대 경쟁력을 보유한 명실상부 최고의 중견·중소기업 컨설팅 전문회사입니다

